『길: 처음을 걷다』

✦ 프롤로그 – 길, 처음을 걷는 마음으로

길을 걷는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도 알 수 없지만

나는 걸음을 뗀다.

그 발끝에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의지도,

무언가를 버리려는 체념도

다 담겨 있지 않다.

그저,

‘이제는 걸어야겠다’는 마음 하나.

때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때론 아주 작은 바람 하나에도

눈물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길을 걷는다는 건

다시 내 안으로 돌아오는 일이라는 것.

이 책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기록이다.

누군가의 정해진 목적지를 안내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종교적 확신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걷고 있는 이들에게

“당신,

혼자가 아니었다”는 말을

들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 제1장 —

길은 말이 되기 이전,

존재의 흔적이었다.

아무도 걷지 않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웠다.

처음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무수한 선택의 연속이었다.

길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흔적처럼,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그 무엇처럼.

길 위에서 나는 알았다.

내 안의 떨림과 떨림 사이에서

말 없이 존재하는 것들의 무게를.

그 떨림은 추위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오히려 손끝의 미세한 진동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가 감지하는

존재의 신호였다.

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묻지 않아도 들리는 세계에서

나는 묻는 법을 잊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말 없는 대답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다.

무명의 고요 속에서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제2장 처음을 걷다

처음이라 처음은

무엇보다 시작이었다.

부끄러움과 당당함이

서로 맞닿은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처음 걷는 길은

홀로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숨결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처음이라는 그 순간은

두려움과 설렘,

불확실함과 희망의 교차로였다.

그곳에서 나는 배웠다.

길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 사이에 펼쳐진

관계의 시작임을.

처음을 걷는다는 것은

끝없이 나 자신과 마주하고,

그 마주침 속에서 길을 만드는 일이었다.

제3장 길은 목적이 아니다

길은 목적이 아니다.

길은 드러나는 것이다.

목적지를 묻기보다는

길 자체를 바라보며 걷는 일,

그것이 진정한 여정이다.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흔적과 선택들이

내가 걸어온 시간의 기록이다.

길은 멈추지 않는다.

그저 계속 드러나며,

나를 만들어간다.

길 위에서 나는 배운다.

목적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그 과정이 나의 존재를 만든다는 것을.

제4장 질문이 길을 만들고, 길은 다시 질문을 만든다

질문이 길을 만들고,

길은 다시 질문을 만든다.

멈춰서 묻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길은 순환하는 질문과 답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자란다.

나는 묻고, 길은 대답하며,

다시 나는 묻는다.

질문과 길은 서로를 완성한다.

그 끝없는 순환 속에서

나는 나를 찾아간다.

제5장 역설 속에서 쉬는 자

역설 속에서 쉬는 자,

그 고요 속에 쉼이 있다.

길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다.

쉬어가며 길을 본다,

그 쉼에서 새로운 힘이 자란다.

쉬는 자는 길 위에서

가장 단단한 발걸음을 준비한다.

쉬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한 준비다.

제6장 나는 약하다, 그러나 감싸인 존재다

나는 약하다.

그러나 약함 속에 감싸인 존재다.

길을 걷는 동안

나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힘을 느낀다.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씨앗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

약함과 보호, 그 둘 사이에서

나는 다시 길을 걷는다.

제7장 홀로였으나, 홀로가 아니었다

홀로였으나,

홀로가 아니었다.

길 위에서 느낀 고독은

결코 완전한 고립이 아니었다.

숨결과 바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나와 함께 걸었다.

홀로 걷는 듯해도,

내 곁엔 언제나 동행자가 있었다.

그 존재들을 알게 되면서

나는 더욱 굳건해졌다.

홀로라는 역설 속에

나는 함께함을 발견했다.

제8장 숨, 그 숨에서 공명이 시작되었다

숨,

그 숨에서 공명이 시작되었다.

나는 걸으며

내 안의 고요한 숨결과 마주했다.

그 숨은 말 없는 노래였고,

무명의 울림이었다.

숨결이 깊어질수록

내 안의 공명이 울려 퍼졌다.

그 울림은

길 위의 나를 다시 일으켰다.

숨과 공명이 만나

길은 끝없이 확장되었다.

제9장 회복, 무너짐에서 오는 순한 반동

회복은

무너짐에서 오는 순한 반동이다.

길 위에서 나는

때로 넘어지고, 무너졌다.

그 무너짐 속에서

나는 비로소 자신을 마주했다.

무너진 자만이

깊은 회복을 맛본다.

회복은 다시 일어섬이 아니라,

조용한 반동으로 시작된다.

그 반동은

내 길을 새롭게 이어준다.

제10장 나는 외로운 구도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외로운 구도자가 아니다.

함께 걷는 사명자다.

길 위에서 나는

홀로가 아님을 알았다.

내 곁에는

같은 뜻을 가진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라서

내 길은 더욱 견고해졌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책임과 신뢰가 자리를 채웠다.

함께 걷는 길은

나를 더 큰 존재로 만든다.

제11장 아멘, 무너짐 속에서 중심을 본다

주님,

어찌하여 저같이 작은 자에게

이토록 무거운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심연 속으로 던져버리고 싶었던 그 짐—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건 짐이 아니라 부르심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당신의 말씀은 침묵이었으나

내 안에서 울리는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강건한 자도,

아름다운 여인도,

인자한 노인도.

그들은 내 삶에 스쳐간 얼굴들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거움은 함께 지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께서 사람들을 보내 주셨기에

감당하겠습니다.

실수할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때로는 길을 잃을 겁니다.

그러나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제게 방향을 주시고,

동역자들의 손을 통해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의 모든 사명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자,

동역자들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찬양입니다.